시끌벅적 e-스타

국민교육헌장을 랩으로 바꾸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70년대 초·중·고교를 다닌 학생들에겐 잊을 수 없는 '국민교육헌장'첫 머리다. 줄기차게 외우고 담임 선생에게 암송 검사를 받기도 했었던 이 헌장, 랩으로 바꿔불렀다면 빨리 외우지 않았을까.

인터넷포털 '다음'에서 '국민교육헌장 랩 13종세트'동영상이 화제다.

이 동영상을 만든 주인공들은 JC·임불요·saty aRun으로 이뤄진 음악 작곡팀 '상상소년'이다.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예명을 쓰면서 나이, 직업, 얼굴도 밝히지 않는다. "음악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 이유다. 이 동영상은 멤버 임불요가 국민교육헌장을 서태지·에미넴·빅뱅·god·슈퍼주니어 등 13명의 랩 특징과 사운드를 그대로 활용해 만들었다.

국민교육헌장 등 6개의 음악 동영상을 올렸는데 수준급이다. 정규곡도 따로 있다. 팀 리더 JC는 "올해 모두 35곡의 음악을 '교향곡 2007'이라는 주제로 홈페이지(www.kumara3.com)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연재 만화처럼 '연재 음악'을 만들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클래식, 힙합과 랩, 록 등 10여곡이 올라와 있다. 멤버들 중 작곡 전공자는 없지만 작곡을 비롯해 피아노, 드럼 등 악기도 능숙히 다룬다.

JC는 "1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음악을 올리면서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자전거 타며 아트 가펑클을 …

자전거쟁이, 자전거선생.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 하게 된 인연 때문이었다. 포크음악을 좋아하는 그는 "자전거는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발명품입니다"라고 말한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시간이 애인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음악은 언제 들어요? "요즘은 구르는 자전거 위에 앉아서, mp3의 이어폰을 사용해요" "'김창환','사이먼 앤 가펑클'을 들을 때, 자전거 곁을 지나가는 풍경을 느껴보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하모니' 혹은 '어울림' 또는 '조화', 그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악과 사람, 음악과 자전거, 음악과 풍경, 거기에도 그런 밸런스(balance)가 있다.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갖기 어렵죠" "우선 자동차의 속도가 자전거와 달라서, 음악과 풍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게다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의 감촉 역시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아름답다. 그렇지만 수단이 다르면 대상도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적당한 속도를 갖는, 그리고 소박한 감성을 담은 포크음악을,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가 아끼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대에 좀 더 많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의 눈에는 그의 안경마저도 자전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몰입의 즐거움(finding flow)'을 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삶을 살아 가면서 크게 '유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무언가에 몰두해서 깊이 조예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다고 썼던 것 같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숨 가쁘다 해도 이번에는 잠시라도 음악에 몰입해 보고, 그러고 나서 맨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쓸 차례가 왔다.

그가 아낀다고 말하는 음악, 70년대 이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듀오'로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었다. 2007년 지금, 그들은 60대 초반, 아직은 예비역이 아니다. 편한 농담으로 그들의 수십, 힛트곡 대부분은 '폴 사이먼(paul simon)'이 작곡했기 때문에, '사이먼'의 이름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노래를 할 때면, '폴 사이먼'은 주선율, '아트 가펑클'은 높은 소리의 장식적 선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면 에서도 '사수와 부사수?'의 느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음악 안에서 그런 생각은 쓸모가 없다. Be like water! 흐르는 물처럼! 그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어쨌든 그들 중, '아트 가펑클'은 2007년 새 음반을 냈다. '잉글번 험퍼딩크'가 그랬고, '글래디스 나잇'이 그랬으며, '롯 스튜어트'가 그랬듯이 20세기에 만들어진 대표적 재즈 음악들을 열 몇 곡 쯤 담고,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 "이 앨범은 두 사람의 위대한 싱어, '쳇 베이커'와 '쟈니 마티스'에 고무되어서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노래하듯이 트럼펫을 불고, 트럼펫을 연주 하는 것처럼 노래했던 '쳇 베이커'와 유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느낌의 '쟈니 마티스'에 영향 받아서 만든 음반이라는 얘기다. 특히 'Let's fall in love'가 좋다. 'Corcovado'도 좋다. 혹시 필자가 당신에게 "요즘 이거 자주 듣는데, 가끔 천국에서 10센티 아래 인 것만 같네요" 라고 거짓말 어린 진실을 말 한다 해도, 몰입의 즐거움을 생각해서, 아무말 말아 주시기를 …

〈음악칼럼니스트〉

뉴스퀴즈

68. '한국 골프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미켈롭울트라 오픈에서 우승,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27점을 모두 확보한 이 선수는 또 다른 조건인 10시즌 현역 활동을 지난 8일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면서 채워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세리 ② 김미현 ③ 박지은 ④ 위성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4일(음 4월 29일 己卯)

子 36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48년생 흉이 복으로 변한다. 60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온다. 72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내용에 활동을 집중하라. 84년생 복이 흉이 될 수도 있으니 매사를 숙고하고 자선을 베풀면 세상이 내 편이다. 행운의 숫자 : 04, 31

丑 37년생 배우자편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49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아니다. 61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73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 85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3, 44

寅 38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50년생 고목회춘의 형상으로 기쁨을 얻는다. 62년생 괴롭히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한다. 74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가 발생하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2, 43

卯 39년생 병약한 길목이다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51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 63년생 희망찬 설계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 75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 09,45

辰 40년생 좋은 매너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풀면서 보내라. 52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를 잘하라. 64년생 사기에 엉킬 수니 신중 하라. 76년생 협조자가 생기나 참여는 피하고 先吉後凶으로 불편하다. 행운의 숫자 : 01, 36

巳 41년생 부부간에 갈등은 변동으로 나타난다. 53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65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치니 혼자서 조심하라. 77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도다. 행운의 숫자 : 19, 35

午 42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손실이 걱정된다. 54년생 주위의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조심하라. 66년생 수족을 살펴보라. 78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4, 26

未 43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경사로다. 55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재수가 있을 수다. 67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 하라. 79년생 협조자가 안 보인다. 혼자서 외롭도다. 행운의 숫자 : 1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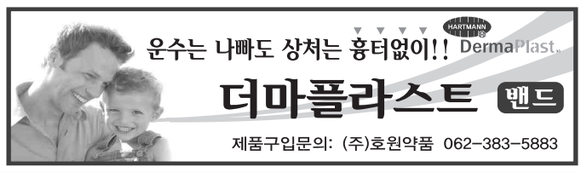
申 44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한다. 오늘은 참아보라. 56년생 모든 일 즐겁다. 68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80년생 욕심은 금물.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03, 29

酉 45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57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69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81년생 남 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야 악몽에서 벗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11, 37

戌 46년생 도끼에 발등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58년생 바람이 일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70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82년생 풍류에 휩쓸려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4

亥 47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접근 한다. 59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71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83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는 못 간다. 행운의 숫자 : 05,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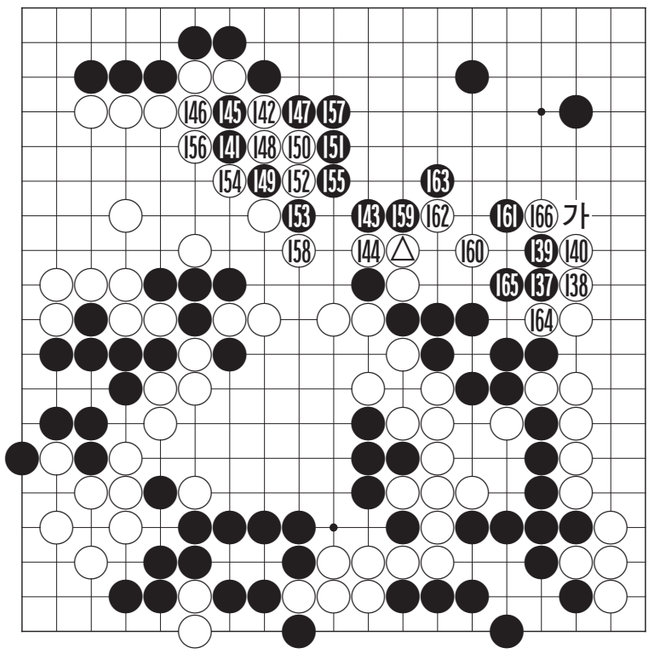
강동윤, 전자랜드배 8강 합류

강동윤 5단이 지난 12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전에서 317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온소진 3단을 반집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강동윤 5단은 종반 끝내기 단계에서 온소진 3단의 양보를 계속 받아내며 차이를 좁혀 나간 뒤 짜릿한 반집 역전승부를 연출했다.

강 5단은 백홍석 5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계속되는 8강전은 18일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의 대국으로 속개된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되며 우승자는 2단, 준우승자는 1단으로 특별 승단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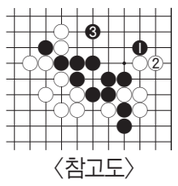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1회전

좁혀진 국면

7보(137~166)

白 최한용 5단 (조선대)

黑 백동원 5단 (광주시청 A)


〈참고도〉

백 ◬가 천하의 요소로 형세를 단번에 백 쪽으로 기울게 만든 호점이 되었다. 이곳은 흑이 144에 느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백 ◬로 늘자 당장 오른쪽 흑 대마가 약해진 것도 흑의 고통이다. 백동원 5단은 눈물을 머금고 알토란같은 실리를 내어주며 흑 137, 139로 공배를 연결해갔는데 이것도 무책한 수였다. 이 수로는 일단 '참고도'의 흑 1로 붙여 누수를 막고 3으로 뛰어 되도록이면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다.

흑 141은 참다못한 백동원 5단의 승부수. 최한용 5단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즉각 142로 반발하고 순식간에 158까지 대변화가 일어났다. 이 결과는 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의 수입도 작지않아서 국면이 좁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

백동원 5단은 계속해서 흑 159로 막았는데 이 수로는 '가'에 젖히는 것이 좋았다. 백 166이 신랄한 추궁 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굿모닝 잉글리쉬 <926>

what beautician would you like?

어떤 미용사를 원하세요?

A:How would you like you hair?
B:A shampoo and the same style set, please.
A:Would you like to get a manicure later?
B:No, I don't think I need to.
A:OK. And **what beautician would you like**?
B:I'd like to have Jane.

A:머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B:머리를 감고 나서 지금하고 같은 머리 모양으로 해주세요.
A:조금 있다 메니큐어 칠하시겠어요?
B:아뇨, 됐어요.
A:알았습니다. 어떤 미용사를 원하세요?
B:저는 Jane을 택하겠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누구든 괜찮아요.
= Anybody who is good will be fine.
퍼머를 자연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으로 하시겠습니까?
= Do you want your permanent natural or about medium?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26>

ネットカフェで待(ま)ってるよ

PC방에서 기다릴께

A:まだ、終(お)わってないの。
B:ごめん、ごめん。後(あと)1時間(じかん)くらいかかると思(おも)うんだ。
A:やだな～～。わかった。**ネットカフェで待(ま)ってるよ**。

A:아직 안 끝난거야?
B:미안, 미안. 앞으로 1시간 가량 걸릴 것 같아
A:아이구 정말! 알았어. PC방에서 기다릴게.

ネットカフェ(넷카페) : 일본의 PC방은 우리나라의PC방 같이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커피숍 카페같은 분위기가 많다
かかる : 걸리다
まだ : 아직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17>

你在网上看什么？

너는 인터넷에서 무얼 보니?

A:你在网上看什么？
Nǐ zài wǎngshàng kàn shénme?
니 짜이 왕 샹 칸 션머?
B:我看看人民币和韩币的汇率。你呢？
Wǒ kànkan rénmínbì hé hánbì de huìlǜ。 nǐne?
워 칸칸 런 민 삐 허 한 삐 더 훼이뤼. 니너?
A:我在看人民币和美元的汇率。
Wǒ zài kàn rénmínbì hé měiyuán de huìlǜ。
워 짜이 칸 런민삐 허 메이위엔 더 훼이뤼.
B:我们都对经济感兴趣。
Wǒmen dōu duì jīngjì gǎnxìngqù。
워먼 떠우 뛔이 찡지 간싱취.

A: 너는 인터넷에서 무얼 보니?
B: 나는 인민폐와 한화의 환율을 좀 보고 있어. 너는?
A: 나는 인민폐와 달러의 환율을 보고 있는 중이야.
B: 우리는 모두 경제에 관심이 많구나.

汇率	[huìlǜ]	환율
对…感兴趣	[duì…gǎnxìngqù]	…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经济	[jīngjì]	경제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43>

物色(물 색)

만물 물, 빛 색

물색(物色)은 '물건의 빛깔'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동물의 털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물(物)은 소(牛)와 끊는다는 뜻과 음을 가진 물(勿)로 이루어져, 잘라서 신(神)에게 바치는 소고기, 또는 제물(祭物), 나아가 존재물이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물색이란 희생(犧牲)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빛깔이다. '예기(禮記)' '월령편'에는 "(제물의) 살찌고 야윔을 살피고, 털 빛깔을 살핀다(膽肥瘠·察物色)"라는 구절이 있다.

뒤에 '물색'은 사람이나 물건의 생김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는 한(漢)나라 광무제가 그의 동문수학 친구인 엄광(嚴光)의 인물됨을 사모하여 친구의 초상화를 그려 찾도록 명령하였다(帝思其賢·乃令以物色訪之)는 고사에서 유래한다.(後漢書)

나아가 인상착의를 그려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 '물색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아우가 형을 위하여 좋은 배필을 물색하였다(弟爲兄物色·得一佳偶)"라는 구절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聊齋志異·嬌娜)

덧붙여 자연물의 빛깔 · 형태 · 모습을 '물색'이라고 하였으니, 요즘 말하는 '물 좋은 카페' 와도 연결되는 말이 아닐까?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